

ArcelorMittal의 인도 Essar Steel 인수가 지연되는 이유

임정성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jsimm@posri.re.kr)

목차

1. 영웅은 고향에서 환영받기 힘들다?
2. 미탈 회장에게도 사상 최악의 Essar 인수전
3. 20여 년 M&A 노하우가 인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세계 최대 철강사인 ArcelorMittal은 소유주이며 회장이 인도 출신이지만, 고국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5전 6기’의 어려움을 겪음
 - 2005년 일관제철소 신설 위한 진출로 시작하여 세 번의 일관밀 건설 시도와 단압밀인 Uttam Galva 인수(지분 30%), 국영철강사(SAIL)와의 자동차강판 JV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
- Essar Steel 인수는 1992년 이후 수십 개의 주요 기업을 인수하여 재건에 성공한 미탈 회장에게도 사상 최악의 기업인수 경험이었음
 - 2018년 2월 입찰서 제출 이후 채권단('18.10)과 파산법원('19.3)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파산법원, 파산항소법원, 대법원 소송 제기로 고전
 - 원 소유주 Ruia가문과 자존심을 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일부 은행과 공급업체(석유가스, 전기, 물류)들이 잇따라 소송 제기
- 파산절차 개시 후 2년 동안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ArcelorMittal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Essar Steel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최적 인수대상 선정)** 20여 년의 부실철강사 M&A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3대 인수원칙(시너지, 저원가, 고부가 생산 잠재력)에 부합한 Essar에만 입찰 참여
 - **(야심찬 재건계획 수립)** 인수자격 논란이 지속되자 인수대금을 60% 인상하고 U\$30억의 설비투자를 약속하며 12백만~15백만톤 체제 성장 계획 수립
 - **(과다한 인수금액)** 반면, 인수금액이 톤당 U\$980(설비투자액 포함)에 달하고 EV/EBITDA 비율은 7.8배로 적정비율인 5.5~6.5배를 상회
 - **(유틸리티 확보 불투명)** 인수 성공 시에도 전기, 향만 등 핵심 유틸리티를 Ruia 가문으로부터 별도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제철소 가동에 문제 예상
 - **(로컬 철강사의 선제적 대응)** JSW, Tata, SAIL 등 로컬 Big3 철강사가 내수시장 방어를 위해 중장기 성장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발표
 - **(인수 타이밍 악화)** 인수가 지연되면서 유럽시황 악화와 인도 경제성장 둔화 등 타이밍이 나빠져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있음
- 가장 최근의 파산항소법원의 판결(7/4) 내용을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특히 약자) 배려 및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인도사회의 기조를 잘 보여줌
 - 인도에서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관리 및 일정 지연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수
 - Ruia 가문과 금융채권단의 추가 소송이 예상되어 Essar 인수 결정은 지연 가능

1. 영웅은 고향에서 환영받기 힘들다?

- 1990년대 중반 혜성같이 나타나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철강제국을 일군 락시미 미탈 회장은 출발은 미약했으며 역경이 오히려 자극이 됨
 - 1976년 인도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전기로 봉강공장을 운영하다가 1989년 우연히 부실화된 트리니다드 국영 철강사를 인수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해 자신의 M&A 잠재력을 발견
 - 1992년 멕시코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 북미, 서유럽, 아프리카,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20개 철강사를 인수해 세계 1위 철강사에 등극(조강생산 63백만톤)
 - 이후 2006년 세계 2위 철강사였던 Arcelor(서유럽 3개 철강사 간 합병회사)를 '적대적 인수'하여 138백만톤 조강능력의 공룡 철강사로 부상
- 미탈 회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고국인 인도시장에 U\$100억을 투자하는 일관밀 프로젝트로 문을 두드렸지만 성공하지 못함
 - 미탈 회장은 재외인도인(NRI, Non-Resident Indian)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히는데 다른 NRI와는 달리 번번이 '錦衣還鄉'하는 데 실패
 - 최초 시도는 2005년 포스코가 오디샤주와 3억톤 광권 확보와 12백만톤 일관제철소 건설 MoU를 체결하자 동일한 계획으로 자르칸드주에 진출
 -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비슷한 투자안을 들고 2006년 오디샤주, 2010년에는 카르나타카주와 MoU를 체결했는데 결과는 동일
 - M&A로 이미 1억톤 이상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확보했지만, 고로 일관밀을 건설해본 적이 없는 미탈 회장이 세 번이나 시도한 것은 철광석 광권 확보와 인도 시장의 성장잠재력 때문
 - 두 번째로 2009년에 전략을 변경해 냉연 단압밀인 Uttam Galva의 지분을 인수(약 30%)하여 인도 진출 교두보로 삼고자 함
 - 지분 인수 후 대주주사인 Miglani 가문과 함께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상공정(3백만톤)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했으나 경제성 부족 판단으로 중단
 -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ttam Galva가 2015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해 채무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이후 Essar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
 - 세 번째로 2015년 국영철강사인 SAIL과 자동차강판 JV를 추진했지만,

오랜 협상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거의 무산된 상태

- 당초 추진 배경은 2014년 집권한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부응하고, 차강판 등 철강수요 호조로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ArcelorMittal의 인도시장 진출 시도 및 성과〉

투자유형	추진시기	사업내용	성과
일관밀 신설	2005년	12백만톤 일관밀 신설(자르칸드주)	장기 보류
일관밀 신설	2006년	10백만톤 일관밀 신설(오디샤주)	공식 철회 발표
일관밀 신설	2010년	6백만톤 일관밀 신설(카르나타카주)	장기 보류
M&A(지분인수)	2009년	냉연도금 단압밀 지분 30% 인수	Essar 인수자격 확보 위해 헐값 매각
Joint Venture	2015년	국영 SAIL과 자동차강판 합작사업	협상타결 지연

2. 미탈 회장에게도 사상 최악의 Essar 인수전

- **(가족 문제 발생)** 미탈 회장은 인도에서 부실철강사 인수를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는 부친과 두 동생들이 주력으로 사업하는 시장이었기 때문
 - 1995년 미탈 회장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런던으로 본사 이전을 원한 반면, 부친과 동생들은 인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장 기회가 있다며 거절하여 갈라서게 됨(공식적으로 회사 분리)
 - 동생들은 Ispat Industries를 통해 상공정을 건설하고 Global Steel Holdings를 세워 필리핀 국영철강사를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다 경영난을 초래(나중에 Essar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
 - 2010년 Ispat Industries가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업계 예상과 달리 미탈 회장은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JSW의 사잔 진달 회장 손에 넘어감
- **(인도 파산법 시행착오)** 미탈 회장은 모디 정부가 기업파산법 제정과 파산법원 설립 등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부실기업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에야 인도 철강사 인수에 나섬
 - 2017년 6월 발표된 최우선 파산처리 5개 철강사 중 입지와 인프라가 양호한 Essar만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입찰서를 제출

- Aditya Mittal 사장이 직접 40여 명의 실사단을 이끌고 Essar, Bhushan Steel, Bhushan Power & Steel, Monnet Ispat, Electrosteels를 철저 조사한 결과임
- ArcelorMittal은 파산법 규정대로 최대 180일(이후 270일로 변경) 안에 Essar를 인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부딪힘
 - 3월에 법정관리인이 ArcelorMittal과 Numetal 모두 입찰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짐. 즉, 파산법에 따르면 기업부실을 초래한 사업주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소지분의 자회사나 관계회사에까지 확대 적용
 - ArcelorMittal의 경우 Uttam Galva와 KSS Petron(정유사업)의 부실화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747억 루피를 지불해 양사 부채를 상환(환율기준 U\$1 = Rs70)
 - 더욱이 그동안 관여하지 않던 동생들의 채무를 인수자격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갚아주기까지 함(국영 State Trading Corp에 대한 채무 221억 루피)
- 이렇게 인수자격을 갖춘 후 입찰가격을 4,200억 루피로 60% 인상하고 야심찬 재건계획을 제출하여 2018년 10월 금융채권단(92% 찬성)과 2019년 3월 파산법원의 승인을 확보
 - 그러나 Ruia 가문 이외 여러 운영채권단과 Standard Chartered 은행 등 인수대금 배분에 불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잇따라 파산법원(NCLT), 파산항소법원(NCLAT), 대법원(SC)에 청원과 소송을 제기
 - 운영채권단은 전기, 가스, 물류 등 제공 기업(국영/주영 기업 포함)이며, SC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대출(U\$5억) 상환비율이 2%도 안 되어 불만 고조
 - 이에 2019년 4월 12일 대법원이 인수대금 배분문제를 공평히 조정하라며 ‘현상유지 명령(Stay Order)’을 내렸고, 이후 NCLAT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함
- **(가문 간 감정싸움)** Essar 인수전은 Mittal과 Ruia 가문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창업 2세들의 경영역량 검증 무대가 되고 있음
- Aditya Mittal(43세)은 2018년 그룹CFO에서 그룹사장으로 승진했는데 그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역량을 보여주는 성과가 필요한 상황
 - Aditya는 1997년 입사 직후 Ispat International의 IPO를 성공시켰고, 2001년부터 M&A팀을 이끌며 알제리, 루마니아, 남아공 철강사를 인수한 후 부사장으로 승진. 2006년에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Arcelor 인수에 성공한 후 그룹 CFO가 됨
 - 락시미 미탈 회장은 내년엔 70세가 되는데 그룹회장직을 아들에게 승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ssar의 경우 인도 5대 재벌그룹으로 성장했으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복미, 아프리카 등 해외진출 후유증으로 경영난을 겪음

- 이에 자발적으로 통신, 석유가스 부문을 매각하고 모태사업인 철강부문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창업 2세인 Prashant Ruia(50세) 중심으로 러시아은행과 컨소시엄을 통해 Essar Steel 입찰에 참여
- 그러나 ArcelorMittal과 마찬가지로 부실화를 초래한 비윤리성이 문제가 됐고, 2018년 9월 4,500억 루피의 부채를 모두 갚아 적법한 인수 자격을 갖추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
- 그런데 2018년 10월 말에 갑자기 금융채권, 운영채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채 (U\$77.7억 상당)를 갚겠다며 파산절차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함

〈Essar Steel 매각추진 경과〉

180일	'17.6	• 파산법원, Essar Steel에 대한 파산처리 개시
	'18.2	• A-Mittal과 Numetal (원소유주 측), 입찰서 제출
270일	'18.3	• Essar 법정관리인, 양사 모두 입찰 부자격 판단
360일	'18.9	• 파산법원, A-Mittal에 적법한 인수자격 갖추 것을 요구 - 부실 관계사 Uttam과 KSS Petron 부채 탕감 (U\$10.7억)
	'18.9	• A-Mittal, 금융채권단 호의 확보 위해 입찰가 상향 제시 - U\$ 45억 → 60억 + 증자액 11.4억 (합계 U\$ 71.4억)
450일	'18.10	• Ruia 가문, 모든 부채(U\$ 77.7억) 상환 분쟁해결안 제시
	'18.10	• 금융채권단, A-Mittal 재건 계획안 다수결로 승인(92%)
	'18.11	• 운영채권단과 SC은행, A-Mittal 인수 반대 청원
540일	'19.1	• 파산법원, Ruia 가문의 분쟁해결안 거절
	'19.3	• 파산법원, A-Mittal의 Essar 인수 승인(조건부)
	'19.4	• 대법원, A-Mittal에 인수대금 지불 중단 명령
	'19.5	• SC은행, 실제 인수액은 U\$ 56.4억 주장(A-Mittal도 인정)
720일	'19.6.말	• 총선결과 발표(5/23), 모디정부 2기 취임(5/31) 등으로 중단

○ Ruia 가문이 계속해서 파산절차를 고의로 방해하자 ArcelorMittal은 2019년 3월 숨겨진 자금원을 찾겠다며 변호사와 컴퓨터 전문가를 대거 동원하여 Prashant Ruia의 런던 사무실을 급습하기까지 함

- 양 가문은 이미 미국에서 U\$15억 규모의 배상 소송에 걸려 있어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음
- 미탈 회장의 글로벌 성공에 고무된 Ruia 가문은 캐나다 고로사와 미국 광산을

인수했고, ArcelorMittal과 10년간 연간 7백만톤의 펠렛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광산개발이 실패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Mittal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3. 20여 년 M&A 노하우가 인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 **(최적 인수대상 선정)** 미탈 회장은 20여 년의 부실철강사 M&A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3대 인수원칙'에 가장 부합한 Essar에만 입찰 참여
 - 3대 인수원칙은 1)기존 그룹 자산과의 시너지 2)저원가 생산 가능성 3)고부가가치 생산 잠재력 여부이며, 이 원칙을 적용하여 18~24개월 내 흑자 전환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인수를 결정
 - 시너지는 대부분 판매, 글로벌 소싱, 물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또한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가 가능
 - 저원가 생산은 제철소의 임해 입지와 함께 동부지역에 소재한 펠렛 공장, 저렴한 분광을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Slurry Pipeline 보유 등으로 가능
 - 고부가가치 잠재력은 현재 일반재지만 판재류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인도 자동차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강판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
 - 고부가가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 또한 모사에서 조업과 기술을 지원하면 빠른 시일 내 가동률 제고와 품질 개선이 가능
- **(야심찬 재건계획 수립)** ArcelorMittal은 인수자격 논란이 지속되자 인수대금을 60% 인상하고 U\$30억의 설비투자를 약속하여 금융채권단에게 험값 매각 비난 회피와 매각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
 - Essar는 현재 Hazira-A와 Hazira-B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설비투자과 중고설비 도입 등으로 인해 공칭능력 1천만톤 대비 조강생산량은 6~6.5백만톤에 불과한 상태
 - 이에 ArcelorMittal은 시급한 부분에 우선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강재생산을 8.5백만톤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2~15백만톤 체제로 성장시킬 계획
 - 현재 공정별 능력은 제강 11.3백만톤, Slab 연주 7.1백만톤, 압연(열연+후판) 8.4백만톤으로 연주능력이 4백만톤 이상 부족한 상태
 - 또한 Essar 인수 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일본제철(NSC)과의 공동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찰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 **(과다한 인수금액)** ArcelorMittal은 최초 제안서에서 3,100~3,200억 루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2018년 9월에 5,000억 루피로 상향 조정함
 - 금융채권단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인수금액이 4,200억 루피, 인수 후 증자약속 금액이 800억 루피로 합계 5,000억 루피. 중장기적인 설비투자 약속금액을 합할 경우 총 U\$98억이 됨
 - 즉, 톤당 인수금액이 U\$980이 되는데, 이는 최근 인수 승인을 받은 이탈리아 ILVA(공칭능력 10백만톤) 톤당 U\$493 대비 매우 고가
 - ILVA 인수금액은 환경투자 약속금액 포함 총 U\$49.3억
 - 인도 내 전문가들은 Essar가 창출하는 EBITDA 대비 ArcelorMittal의 가치평가가 7.8배에 달해 적정비율인 5.5~6.5배를 상회한다고 주장
 - 고가 인수논란이 있었던 Tata Steel의 Bhushan Steel(5.6백만톤, 자동차강판 생산) 인수의 경우도 6.8배 수준
- **(유틸리티 확보 불투명)** 인수 성공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기, 향만, Slurry Pipeline 등 각종 유틸리티 활용 가능성임
 - ArcelorMittal은 별도 자회사로 운영되는 발전소, 향만 등의 인수를 위해 Ruia 가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해야 하지만 Ruia 측이 매각을 거부
 - 최근 들어와 Slurry Pipeline 자산이 별도 법인 소유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Essar 인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상했던 원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Aditya Mittal 사장은 펠렛공장(8백만톤 가동 중) 등 원료 관련 자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획 중인 펠렛공장(6백만톤) 건설을 추진할 방침
 - 또한 Essar는 구자라트주 전력회사, 인도석유공사, 인도가스공사 등 많은 아웃소싱 업체에 미납채권이 많은데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7월 4일 NCLAT가 판결 내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천만 루피 이상 채권을 가진 아웃소싱 업체는 59.61%까지 상환을 받게 됨(당초 대비 불만 완화)
- **(로컬 철강사의 선제적 대응)** JSW, Tata, SAIL 등 로컬 Big3 철강사는 ArcelorMittal의 인도진출에 위기감을 갖고 서둘러 정비에 나서고 있음

- JSW와 Tata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과 수익성을 자랑하는 철강사
 - Tata와 SAIL은 소요 철광석을 100% 자급할 수 있는 광산을 보유
- 최근 중장기 성장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여 발표함으로써 내수시장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025년까지 철강능력 목표: JSW 40백만톤, Tata 30백만톤, SAIL 35백만톤
 - 6월초 JSW 진달 회장은 미탈 회장이 인내심 한계로 인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수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견제와 방해 차원)

□ **(인수 타이밍 악화)** ArcelorMittal의 Essar 인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인수 타이밍이 나빠져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있음

- 유럽시황 악화로 Essar 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증대되어 ‘Action Plan 2020’의 순부채 목표(U\$70억) 달성이 요원(‘19.3월 말 현재 U\$112억)
 - ArcelorMittal은 2019년 5월 초 동유럽 및 남유럽에서 연산 3백만톤 감산 조치를 취한 데 이어 5월 말에는 서유럽 제철소에서 감산계획 발표가 있었음
 - 6월 말에는 브라질 Tubarao 제철소에서 조기개수 실시 및 가동시기 조정으로 감산 효과를 보고 능력확장을 위한 신증설 프로젝트의 실행속도도 늦춤
- 인도 경제성장률도 FY’18에 6.8%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2019년 철강수요 성장률이 5~6%에 그칠 것으로 예상 (‘19.4월 세계철강협회의 인도전망 7.1% 대비 악화)
- 인수 후 해묵은 이해관계자들의 ‘자기 이익’ 주장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음
 - 자동차강판 JV 체결 위한 SAIL의 압박 예상, 일관밀 MoU를 체결한 주(자르칸드, 카르나타카주)에서의 투자약속 실행 요구 등

〈ArcelorMittal의 Essar Steel 경영재건 성공 가능성 비교〉

긍정적 요소들	부정적 요소들
• ‘3대 인수원칙’에 입각한 최적 인수대상 선정 • 야심찬 경영재건 계획 제시로 금융채권단 매료	• 과다한 인수금액 U\$98억 • 항만, 가스, 발전, 물류 등 유틸리티 확보 불투명 • Tata, JSW, SAIL 등 로컬 Big3의 선제적 대응 • 시황 급락으로 인수 타이밍 악화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ArcelorMittal이 최종적으로 인수에 성공한 경우에도 고가 인수와 고비용 구조, 로컬밀과의 경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기 이익 주장으로 Essar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4. 시사점

□ 파산항소법원은 2019년 4월 12일 대법원의 ‘매각 중지 명령’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한 후 80여일 만인 7월 4일 판결 내림

- 116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① Ruia 가문의 청원은 기각: ArcelorMittal의 인수자격에 대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더 이상 파산절차 추진을 방해 말라”)
 - ② ArcelorMittal의 Essar 재건계획은 인정: 인수대금은 운전자금을 포함하여 4,200억 루피여야 함. 이후 증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제고계획을 평가
 - ③ 금융채권단 85%, 운영채권단 15%로 인수대금 배분: 1천만 루피 이하 채권자는 100% 상환(종업원, 노무자, 운영채권단, 금융채권단 등 약자층 보호 차원)
 - 반면, 1천만 루피 이상은 금융채권단, 운영 채권단 차별 없이 역 60% 상환
 - ④ Essar Steel의 파산기간 발생 수익은 ArcelorMittal이 아닌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 Essar는 지난 600여 일간 약 400억 루피의 EBITDA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파산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특히 약자) 배려 및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인도사회의 기조를 잘 보여줌

- 인도에서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관리 및 일정 지연 가능성 고려 필요
- 최근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진 금융채권단의 대법원 항소와 Ruia 가문의 추가적인 소송도 예상되어 ArcelorMittal의 Essar 인수 최종 결정은 2~3개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모디 2기 정부가 7월 5일 연방예산안 발표 후 본격적인 경기부양책 실시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기에 Essar 매각을 매듭 지으려 할 가능성도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 Essar Steel 매각 진행 경과 >

	주요 일정
2017	6월 27일 National Company Law Tribunal(NCLT)에서 Essar Steel India Ltd.(ESIL)에 대한 파산처리 개시 7월 4일 ESIL, SBI 주도 채권단이 추진한 구자라트 고등법원에 파산절차 반대 제소. 고등법원, ESIL 청원 기각 7월 5일 Standard Chartered, 구자라트 고등법원에 NCLT가 추진하는 파산절차 중단요청 청원 제출 8월 NCLT, ESIL에 대한 파산청원 승인. 잠정회생전문가(IRP)에 Alvarez & Marsal India의 Satish Kumar Gupta 임명 10월 IRP, Essar Steel에 대한 EOI(투자의향서) 참여 요청
2018	2월 12일 Numetal과 ArcelorMittal India가 1차 입찰서 제출 3월 RP, Numetal, A-Mittal India의 입찰 부자격으로 중단, 양사는 NCLT에 반대 청원 4월 2일 RP, 2차 입찰 참여자 모집 공고 4월 19일 NCLT, 파산법(IBC)의 개정안 적용하지 않아 IRP에 1차 입찰 재검토 지시 5월 ESIL의 정지된 이사회, 부채 구조조정계획 제출, 거절됨 9월 7일 NCLAT, ArcelorMittal에 Uttam Galva와 KSS Petron의 부채 탕감 요구 9월 10일 ArcelorMittal, 종전 Rs 3,100~3,200억에서 수정된 입찰가 제시(Rs 4,200억), 인수 후 자본증액 Rs 800억 별도 10월 23일 ESIL의 대주주인 Essar Steel Asia Holdings (ESAHL), Rs 5,439억 부채 전체 상환하는 분쟁해결안 제시 10월 24일 채권단은 ArcelorMittal의 Rs 4,200억 입찰에 대해 92% 다수결로 승인 11월 운영채권단, ArcelorMittal의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청원 제소. Standard Chartered 은행도 회생계획 반대하는 별도 청원 제소
2019	1월 29일 NCLT, ESAHL의 Rs 5,439억 타결 제안 거절 3월 8일 NCLT, ArcelorMittal의 Essar Steel에 대한 Rs 4,200억 입찰 승인(조건부) 4월 12일 대법원, ArcelorMittal에 채권단에 대한 인수액 지불중단 명령(Stay Order) 5월 13일 Standard Chartered, 인수금액은 Rs 4,200억이 아닌 Rs 3,950억이라고 주장 5월 14일 NCLAT, Ruia에 Essar Steel Resolution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 5월 15일 ESAHL, NCLAT에 L.N.Mittal이 동생들이 운영하는 부실기업(GPI Textiles, Balasore Alloys, Gontermann Piepers)과의 관련성을 숨긴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 5월 16일 ArcelorMittal, 인수 지불금액은 Rs 3,950억이며, Rs 250억은 Essar의 예상 수익이라고 인정(신뢰성에 훼손). 이후에 Rs 4,200억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발표 7월 4일 NCLAT, 경영재건계획 인정 반면, Ruia 가문 청원은 기각, 자금배분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자료]

[보고서]

임정성, “LNM Group의 글로벌전략과 성공요인 분석”, 「POSRI 경영연구」, 제5권 제1호 2005.

임정성, “미탈 회장 쫓다 혼쫓난 인도 철강사”, POSRI 이슈리포트, 2013.6.14

[홈페이지]

ArcelorMittal 홈페이지(<http://corporate.arcelormittal.com/>): Financial Results 자료 등

Essar Steel 홈페이지(<http://www.essarsteel.com/>)

[언론]

BloombergQuint, “ArcelorMittal Says It Will Face ‘Risks’ From Proposed Essar Steel Acquisitions”, 2019.2.26

Business Line, “ArcelorMittal to pay ₹7,469 cr to settle Uttam Galva, Petron debt”, 2018.10.17

Business Line, “Essar Steel-NCLT Case: A timeline”, 2019.3.8

Business Standard, “NCLAT chides Ruias, says interventions delaying Essar Steel resolution”, 2019.5.14

Financial Express, “NCLAT rejects Ruia’s bid to block ArcelorMittal; approves bid for Essar Steel with modification”, 2019.7.4

LiveMint, “From Hazira to London: Lakshmi Mittal takes the battle to Prashant Ruia”, 2019.3.15

Marketing Mind, “After Ambani Brothers Lakshmi Mittal Helps Promod Mittal By Clearing Dues Of ₹2,210 Crore”, 2019.3.29

The Telegraph, Mittal scion ready to battle all odds to win Essar Steel”, 2018.5.7

The Economic Times, “After IBC war Ruias & ArcelorMittal talk deal for Hazira port & power plant”, 2019.2.20

The Economic Times, “Courts, banks must fast-track Essar resolution: Sajjan Jindal, Chairman, JSW Group”, 2019.6.6